규범적 실천으로서의 즉흥성[1]

(게오르그 W. 베르트람, 홍익대학교 강연, 2022 년 10 월 28 일)[2]

1. 즉흥성의 예비적 개념에 대하여
2. 즉흥성의 기본 구조: 개별 행동 접근법 vs. 상호 작용 접근법
3. 생성 중에 있는(in *Statu Nascendi*) 규범
4. 요약: 규범적 실천으로서의 즉흥성

즉흥성의 존재론은 어떻게 가능한가? 즉흥성은 존재론의 개념 자체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혹자는 즉흥성이 불안정한 행위이며, 따라서 존재론적 반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즉흥성은 안정적인 토대에 의존하지 않는 인간 실천의 이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레비스트로스의 "브리콜라주[bricolage][3]"의 의미에서 형이상학 일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비판론자는 즉흥성의 존재론을 탐구하는 것이 심각한 이론적 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존재론을 과정과 변화, 불안정성을 배제하는 체계로 가정한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다. 비록 정적이지는 않지만 즉흥성은, 어떤 것을 즉흥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본 발표는 그러한 조건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

[1] [역주] 이 글에서 **'practice(실천)' 개념과 함께 가장 중요한 개념인 'improvisation'은 예술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즉흥적인 행위, 실행(수행), 반응, 상호작용, 연출 및 진행 과정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를 충분히 반영하려면 '즉흥적 실행' 또는 '즉흥적 수행'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할 것이지만, 글의 간명함과 가독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즉흥성'으로 옮긴다. 하지만 맥락에 따라 어감을 위해 간혹 '즉흥적 실천'으로 옮기기도 했다. 한편, 종종 등장하는 'improvisational practice'도 '즉흥적 실천'으로 옮긴다.

[2] 국문번역: 박지현, 감수: 하선규

[3] [역주]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추가한 내용은 대괄호로 표기한다. 또한 내용상 중요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간혹 작은 따옴표를 표기한다.

즉흥성의 존재론이라는 관념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즉흥성이 작품[works]을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즉흥성의 존재론을 구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작품의 지위를 얻지 못한 단순한 행위들과 예술 작품 사이를 구별하는 예술철학의 일반적인 구분에 의존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자면, 즉흥성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즉흥성이 왜 작품이 아닌지를 규명하는 일, 즉흥성이 지닌 특유한 예술적 가치의 유형을 정의하고, 아울러 이러한 유형이 작품에 의해 실현되는 예술적 가치의 유형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들을 정의하는 일이다.

음악 철학 내에서 악곡[composition]과 즉흥성의 구별은 이러한 대비에 상응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즉 악곡은 어떻게 연주가 되어야 하는지를 사실상 규정하고 있는 안정적 구조를 가진 작품이지만, ("완전한[total]") 즉흥곡은 그러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악곡과 즉흥곡의 뚜렷한 구분을 거부하는 사상가들조차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즉흥성이 무엇인지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 작품 또는 악곡과 공연[performance]으로서의 즉흥성 사이를 구별하는 일은 즉흥성의 존재론을 구성하는 상이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즉흥성을 작품이나 악곡과 대조하는 것은, 많은 즉흥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예술작품에 의해 실현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에 상응한다. 즉흥성은, 흔히 "작품의 미학"(cf. 에코)이라 불리는 것을 초월하는, 고유한 유형의 예술적 가치의 창조를 목표로 한다. 혹자는 이러한 표현이 즉흥성에 대한 예술적 마케팅 구조[artistic marketing structure]의 한 측면이라고 할 것이다(존 케이지, 에디 프레보스트, 데릭 베일리의 작품과 이론을 생각해보라).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면서 그것을 수행하는 자[practitioner]가 이해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면, 가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단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와 그들이 맡고 있는 역할에만 의존한다면, 가족의 필수적인 사회적 역할을 간과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들이 특정한 실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항상 일방적인 자기 개념, 곧 **잘못된 의식**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늘 [직접적] 관계자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즉흥성과 악곡을 병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탈리아 철학자 알레산드로 베르티네토가 보여주었듯이, 그것은 필연적으로 즉흥성의 독특성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결론에 도달한다. 만약 누군가 "즉흥성과 공연 사이에는 범주적 구분이 없고", 오히려 [그것들은] "실천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한다면(Cook 2017: 64), 우리는 즉흥성이 악곡과 대조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악곡 개념 자체가 즉흥성의 개념에 입각하여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도 여전히 즉흥성의 독특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악곡의 개념이 즉흥성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통찰의 표현일 뿐이다.

즉흥성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이 방향 전환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즉흥성이 예술로 제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흥성은 일상 생활의 필수적인 측면이다(cf. Ryle 외 다른 저자들). 이 때문에

즉흥성은 존재론적 반성의 근거를 예술과의 불가분적 관계 속에 둘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본 개념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어질 내용에서 나는 실천[practice]을 즉흥성이 속하는 종(genus)으로 정의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즉흥성이 규범적 실천의 구체적인 한 유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즉흥성의 독특성은, 그 안에서 지침적인 규범들[guiding norms]이 즉석에서 생성된다는 사실로 정의될 수 있다.

나의 논의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즉흥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발전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부분은, 즉흥성의 기본 구조를 충격[4]과 반응의 측면에서 명확히 설명한다. 세 번째 부분은, 충격-반응 구조가 즉흥성이라는 특정한 유형의 규범적 실천의 토대가 되는 방식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은, 규범적 실천으로서의 즉흥성의 독특성을 요약한다.

1. 즉흥성의 예비적 개념에 대하여

즉흥성이란 무엇인가? 즉흥성은 즉석에서 어떤 것을 생성하는 실천이다. 즉흥적 실천을 행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러한 즉흥성의 정의는, 사건[events]을 실천으로 특징짓는[규정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실천'이란, 무엇인가가 행해지는 사건이다. 그러나 행해지는 것은, [각각이] 매우 다른 체계들[여건들] 속에서 행해질 수 있다. 나는 즉흥성의 예비적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실천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은 규칙-지배적[rule-governed] 실천, 두 번째 유형은 즉흥적 실천, 세 번째 유형은 어떤 것이 단순히 [관행과] 다르게 행해지는 실천이다.

규칙-지배적 실천은, 미리 주어진 규칙(규범적 또는 구성적 규칙; cf. von Wright and Searle)에 의해 결정되는 실천이다. 이러한 실천안에서는 규칙들이 적용된다. 즉흥적 실천은 미리 주어진 규칙이 없는 것이 특징인 실천이다(그러나 즉흥성에 규범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본문 Section 3 참고). 그러나 즉흥적 실천 외에도 규칙-지배적이지 않은 실천들이 있다. 규칙-지배적이지 않은 실천의 또 다른 한 유형으로, 단순히 [관행과] 다른 방식으로 행해지는 실천이 있다. 만약 내가 요리할 때 단순한 호기심이나 재미를 위해 소금을 생략한다면, 나는 즉흥적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뭔가 다르게 행할 뿐이다. 나의 요리가 즉흥적 실천이기 위해서는, 정해진 레시피와 같은 것에

[4] [역주] 원어 impulse. '자극'으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 생리적, 과학적 느낌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본문에서는 '충격'으로 번역한다.

의해 안내되지 않은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 요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즉흥적 실천은, 단지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다를 뿐인 실천과는 구별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리 주어진 규칙이 지배하는 실천과, 다른 한편으로는 무언가가 단지 [관행과] 다르게 수행되는 실천 사이에 즉흥성을 배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것'[the unexpected]의 개념을 소환함으로써, 실천의 세 가지 유형간의 구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것은 즉흥적 실천의 필수 요소인 반면에, 규칙이 지배하는 실천이나 무언가가 다르게 수행되는 실천에서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미리 주어진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실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만약 실천이 규칙에 의해 인도된다면, 오직 두 가지 최종 결과, 즉 규칙을 따르는 경우와 규칙을 어기는 경우만이 가능하다. 그 중 어떤 쪽도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이 단지 다르게 행해지는 실천도 마찬가지다. 무작위성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지금까지 그 특징을 서술한 두 가지 유형의 실천과 달리, 즉흥적 실천은 예상치 못한 것의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요리가 예시로 적절하다. 내가 단지 소금을 생략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결과는 예상 밖일 수 없다. 이는 요리할 때의 즉흥성과는 다르다. 여기서는 소금을 생략한 결과가 예상치 못한 것일 수 있다. 예컨대 소금을 넣지 않는 것이 요리의 맛을 흥미롭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소금을 생략한다고 가정하자. 생각보다 맛이 흥미롭지 않다면 나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응하여 요리에 대한 나의 접근 방식을 수정할 수 밖에 없다. 예상치 못한 어떤 것이 [새로운] 반응을 유발하고, 잇따르는 실천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즉흥적 실천의 전형이다.

예상치 못한 것은 현상학적으로 즉흥성 안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예상치 못한 것은 즉흥적 실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아폴로 13 호의 유명한 사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우주선의 산소탱크 중 하나의 예기치 않은 폭발로 인해 승무원들은 사령선을 떠나 달 착륙선으로 옮겨 지구로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달 착륙선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이 예상치 못한 긴 여정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시스템을 즉흥적으로 수정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것이 즉흥성 자체 안에서 출현하는 경우, 그것은 또 다른 형태로 발생한다. 재즈 4 중주의 즉흥 연주와 드러머의 예상치 못한 필인[fill-in, 즉흥적인 삽입 연주]을 생각해보라. 이런 돌발적인 사건들이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 많은 예술적 즉흥 연주에서 온갖 종류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며, 각각은 연주되는 것 안에서 미묘한 전환점이나 변화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것은 즉흥적 실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예비적 성찰은 즉흥성의 존재론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즉흥성을 실천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독특성을 예상된 것과 예상치 못한 것 사이의 변증법을 통해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기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즉흥성의 특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이 즉흥성의 본질적인 국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즈 4 중주단의 즉흥 연주를 떠올려보라. 만약 드러머의 어떤 행동을 통해 특정한 리듬 구조가 확립된다면, 연주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머의 첨가에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흥 연주 속에서 확립된 것은 예상들을 불러일으킨다. 그렇다고 해서 연주자들이 그러한 예상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실현하는 새로운 충격들을 기여하도록 초대받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것은 예상들의 전개를 바탕으로 발생한다. 이어서 나는 어떻게 예상된 것과 예상치 못한 것의 역동적 관계가 즉흥성에 필수적인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2. 즉흥성의 기본 구조: 개별 행동[single action] 접근법 vs. 상호 작용[interaction] 접근법

즉흥성은 실천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행동을 즉흥성의 기본 단위로 생각하기 쉽다. 이 주장에 대한 [가능한] 한 가지 접근은, 매 행동이 여러 선택지 중에서 선택을 함으로써 즉흥성의 과정을 새롭게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해석은, 어떻게 이어나갈지에 대한 즉흥적인 선택이, [가능한] 행동의 선택지를 형성하는 제약들의 복잡한 구조에 의해 제한된다고 언급함으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혼자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 당신은, 악기, 연주 능력, 화음 구조에 대한 이해 등의 제약 속에서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에 얽매인 채, 당신은 어떻게 즉흥적으로 연주를 이어나갈지 선택을 하게 된다. 혹은 또 다른 예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과학을 주제로 한 발표를 청중과 토론하는 동안, 학업 습관, 사회적 관습, 예의범절 등의 제약 하에서 가능한 답의 요소들을 선택한다. 두 번째 사례는 첫 번째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따라서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일이 더 어렵게 보일 것이다. 이것은 왜 과학 발표를 하는 것이 집에서 피아노로 즉흥 연주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어떤 행동들은 예상된 것들을 실현하고, 다른 행동들은 예상치 못한 것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여기서 요약한 즉흥성에 대한 설명을 즉흥성의 존재론에 대한 "개별 행동 접근법"이라 부르자. 이 접근법의 기본 발상은 즉흥성이 - 즉흥적 실천의 전체적인 구조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 개별적인 행동들을 통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모든 새로운 행동은 즉흥적 실천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고, 이것은 이어질 행동들의 토대가 된다(cf. 이와 관련한 언어적 실천에 대한 설명은 Brandom 참고). 개별 행동의 관점에서 즉흥성을 생각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접근법에는 오류가 있다. 그 주된 결함은, 즉흥성을 여러 선택지들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로서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발상 자체에 있다. 이 접근법은 즉흥성이 더 예상된 선택과 덜 예상된 선택의 순간 모두를 함의하는 순간순간의 행위임을 시사한다. 이 접근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예상된 것과 예상치 못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즉흥적 실천을 할 때 애초에 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또한] 이 접근 방식은 특정 선택이 즉흥성 안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즉흥성 내의 두

행위 사이의 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선택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따르는 행동의 방향성을 규정하는가? 그리고 왜 즉흥성 안에서 어떤 행동은 예상치 못한 것을 제시하는 행위로, 반면에 다른 행위들은 예상된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즉흥성 안에서 서로 다른 행동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개별 행동 접근법의 또 다른 단점은 집단 즉흥성[group improvisations]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즈 4 중주를 다시 생각해보자. 재즈 4 중주는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네 명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개별 행동들을 그들의 즉흥연주의 구성단위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색소폰 연주자가 혼자서 즉흥연주하는 것과 그녀가 다른 연주자들과 함께 즉흥연주하는 것을 구별할 수 없다. 개별 행동 접근 방식은 두 경우에 모두, 마치 그녀가 자신이 내는 소리와 다른 사람이 내는 소리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외부 제약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색소폰 연주자가 미리 녹음된 세개의 악기와 함께 연주하면서 연습할 때("에버솔드[5]의 반주 트랙을 따라 연주하는 것과 같이")를 생각해보라. 이러한 녹음은 세 명의 연주자들과 함께 라이브로 즉흥 연주를 하는 것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거짓이다. 다른 악기들의 녹음이 훈련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연습하는 것은 집단 즉흥 연주와는 다르다. 차이는 명확하다. 연습 상황에서는 색소폰 연주자가 연주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른 연주자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녀가 재즈 4 중주에서 다른 세 명의 연주자들과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개별 행동 접근법의 단점을 식별하는 것은, 즉흥성을 적절히 해명하려면 즉흥성 내의 상호 작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해 준다. 그러므로 나는 이어질 내용에서 제시하고 옹호할 입장을 '즉흥성에 대한 상호작용적 설명'이라 부르겠다. 이 설명은 즉흥성 내의 행동들이 어떻게 서로 결합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즉흥성 내의 선택에 동기를 부여하는지, 두 가지 모두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혼자서 피아노를 칠 때, 이미 여러 번 연주했던 것을 그냥 연주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것 또한 시도할 수 있다. 그때 나는 바로 다음 순간에 어떻게 계속해나갈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방금 연주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예컨대] 나는 그것이 지루하거나 단지 어떤 방향으로도 발전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내용에 대응하려는 시도가 완전히 부재하게 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나는 계속해나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잇따르는 나의 행동들이, 무엇이 최초의 충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준다. 이것은 우리에게 즉흥성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들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들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충격[impulse]과 반응[response], 부름과 응답의 관계이다.

---

[5] [역주] 원어 이름은 Jamey Aebersold 로, 함께 연주하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한 교습용 음반인 '플레이 어 롱'(Play-A-Long) 시리즈로 유명한 미국의 재즈 색소폰 연주자이자 음악 교육가이다. (Jamey Aebersold Jazz: https://www.jazzbooks.com 참고)

우리는 충격과 반응의 구조를 즉흥성 내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호작용을 통해 가장 명료하게 예시할 수 있다. 만약 즉흥 무용에서 누군가가 특정한 리듬으로 자신의 팔을 움직인다면, 동료 즉흥 무용수들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들의 반응은, 그 핵심을 요약하자면, 세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첫 번째 선택은 그들이 충격의 리듬을 받아들이고 비슷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두 번째 옵션은 일종의 반작용(counter-action)이다.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한편으로 반작용은 제시와 반박의 대화적 구조를 엮으로써 서로 다른 관점들 간의 갈등의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 반작용은 해소할 수 없는 반목을 일으켜 공동체의 소멸로 귀결될 수 있다. 세 번째 옵션은 응답의 완전한 부재이다. 이는 무시 또는 부정적인 평가에서 비롯될 수 있다. 즉흥성에 참여하는 동료들은 충격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충격이 자신들에게 제시하는 '어포던스(affordance)[6]'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또는 그들은 충격에 반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그들은 암묵적으로, 주어진 충격이 즉흥성을 적절히 전개하기 위한 발판이 되지 못한다고 평가한 것이다.

충격과 반응의 연결성을 즉흥성의 맹아로 봄으로써, 우리는 즉흥성이란, 참여자가 즉흥성 내에서 직면하는 충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모든 충격이 그 자체로 반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무용가의 충격은 그전까지 즉흥성 내에서 발전되어온 어떤 것에 의해서 추동된다. 그것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즉흥성의 과정에서 형성된 기대에 대한 응답이다. 엄밀히 이해하면 즉흥성 안에서의 어떤 충격도 [순수한] 시작은 아니다(cf. 데리다). 심지어 우리는 즉흥성의 시작도 이전의 즉흥성과, 즉흥성이 반응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즉흥적 실천에서 모든 행동은 원칙적으로 충격이면서 동시에 반응이다.

이전의 충격에 대한 반응으로서, 즉흥성 내의 모든 행위는 어떤 본질적인 인식의 차원을 내포한다. 즉흥성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동을 함과 동시에, 자신이 반응하고 있는 행동(자신의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이든)을 수용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상호작용 접근법에 따르면, 즉흥성 안에서 생산과 수용은 서로 합치한다. 이러한 합치는, 즉흥성 내에서 예상된 것과 예상치 못한 것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즉 예상들은 참여자들이 즉흥성의 과정에서 실현된 것들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와 결부되어있다. 참여자들은 오직 이와 같이 인지적으로 개방된 상태일 때만, 즉흥성 속에서 만들어진 기대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과, 더 나아가서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

[6] [역주] '어포던스(affordance)'는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도널드 노먼(Donald A. Norman 1935-)에 의해 산업디자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요소, 또는 그러한 성격을 의미한다. (김영호,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추상적 형태에 의한 어포던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Vol 28, 2017, p.362 참고)

충격과 반응의 상호작용 접근법은, 개별 행동에 초점을 맞춘 즉흥성의 설명이 왜 오류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개별 행동 중심의] 설명은 마치 개별 행동을 구속하는 제약들이 외부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즉흥성은 즉흥성 자체 안에서 일련의 구조와 제약을 정립한다. 즉흥성 안의 제약이 지닌 일반적인 형태는 충격의 개념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다. 즉흥성 속의 행동들은 그들이 반응하는 충격들에 의해 제한된다. 즉흥적 실천은 자신의 제약을 스스로 구성하는 일련의 행동들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것은 즉흥성과 관련된 외부 제약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외부 제약들이 [즉흥성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들이 즉흥성 속의 행동들이 서로 연결되기 위한 토대는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연결을 내적인 제약에 기초하여 설명해야 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별 행동 접근법은, 즉흥성 안에서의 선택이 왜 미래의 행동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답을 주지 않는다. 앞서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다. 개별 행동 접근법에 의하면, 즉흥성 내의 모든 행동은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마치 즉흥성이 외부의 제약들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무[無]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io*]인 것처럼, 참여자들이 자신이 직면하는 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매 순간 의미 있는 것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모든 즉흥성의 행동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낸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 있는 것의 생산' 개념 자체와 상충된다. 왜냐하면 의미있는 것은 반드시 미래의 행동을 위해 의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 행동 접근법의 경우, 모든 행동은 무엇이 의미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므로, 어떤 과거의 행동도 그것에[현재 행동에]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어떤 (과거) 행동도 미래의 행동에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만약 해당 행동이 미래의 행동에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 이는 [결국] 다음 주장이 된다. 즉 개별 행동 접근법이 행동을 '의미 있는 것의 생산'으로 설명하는 것은, 동시에 의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는다는 설명에 다름 아니다.

상호작용적 설명은 우리가 이 모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가 즉흥성의 행위들을 '반응'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행위들이 어떻게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행위들은 자신이 충격을 제공하는 미래의 반응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즉흥성의 행위는 의미 있는 것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응답을 기다리는 충격이다. 개략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응답들은 위에 상술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아들이거나, 일종의 반작용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에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적어도 처음 두 유형을 통해, 충격은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같이, [충격과 반응은] 즉흥 공연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속될 수 있다. 즉흥성의 충격은 공연이 전개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존 콜트레인(John Coltrane)의 색소폰 연주 스타일을 생각해보라. 충격들은 심지어 그 이후의 여러 공연도 형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대된 것이 어떻게 즉흥성 속에서 확립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기대된 것은 충격으로부터 발전해나가는 실천들의 연쇄를 통해서 확립된다. 이러한 연쇄가, 새로운 충격에 의해 예상치 못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자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즉흥성의 존재론은, 즉흥성의 핵심이 충격과 반응의 상호작용이란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번째 유의할 점은, 예시들이 암시하듯이, 충격과 반응이 반드시 서로 다른 참여자들에 의해 생성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충격과 반응의 구조는 단독으로 하는 또는 그룹으로 하는 즉흥적 실천 모두를 구성한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의점은, 충격과 반응의 상호작용이 자주 두 개 이상의 행위들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즉흥성 내의 충격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펼쳐지는 많은 반응들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

3. 생성 중에 있는(in *Statu Nascendi*) 규범

즉흥성의 충격-응답 구조는 두 요소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즉흥성 내에서 실현되는 충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충격은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는 행동을 구속하는가?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충격에 의미를 부여하는 응답은 여러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응답들은 충격이 제공하는 것을 연장하거나 충격에 대한 반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반응이 (반복, 변화 또는 다른 기술을 통해) 충격을 연장할 때, 반응은 소급하여 [자신이 응답하는] 충격을 자신을 위한 규범적인 권위로 규정한다. 충격이 규범을 설정하며, 응답하는 행위들은 – 이들이 충격의 연장을 목표로 한다면 – 이 규범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규범성이 지닌 두 가지 측면이 결정적이다. 첫번째로, 규범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반응이 필수적이다. 개별 행동[접근법]의 의미에서 충격들은 그러한 규범을 구성하지 않는다. 충격들은 단지 반응을 통해서만 구성되는 규범을 위한 어포던스를 제공한다. 둘째, 규범성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범들이 생성되고 발전할 것을 요구한다. 규범들은 영원히 안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끄는 행위들이 발전함에 따라 변화한다. 두 번째 유형의 반응의 경우, [곧] 충격에 대해 반대 충격이 응답할 때, 서로 갈등하는 규범들은 즉흥성 속에서 전개된다. 규범들 간의 갈등을 통해서 규범들은 서로를 형성하고 개선한다.

이와 같이, 즉흥성에 대한 상호 작용 접근법에서는 즉흥성을 특정한 유형의 규범적 실천으로 파악한다. 위에서 언급한 통념에 따르면 규범적 실천은 규범을 적용하는 실천이다. 이는 해당 규범이, 그 내용이 해당 실천과 상관 없이 미리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실천에 선행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관점을 수용하기 위해 규범을 (플라톤적 실체와 같이) 실천에 완전히 독립적인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규범의 형성과 규범의 적용을 구조적으로 구분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규범성의 “2 단계”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규범의 적용에 대한 관념 자체는, 규범의 정립이 규범이 인도하는 실천에 선행한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즉흥적 실천은 미리 정해진 규범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즉흥성을 이와 같은 규범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없다. 혹자는 많은 즉흥적 실천들이 그 이전의 소재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반박할 수 있다. 오르간 연주자가 찬송가를 즉흥적으로 연주하거나 재즈 뮤지션이 〈My favorite Things〉를 즉흥적으로 연주할 때, 이들은 자신들에게 규범적인 힘을 행사하는 구조를 충실히 따른다. 그러나 이렇게 구조를 준수하는 일은 규범적 실천으로서의 즉흥성을 구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특정한 구조의 반복이 즉흥성으로 규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즉흥적 실천의 규범성은 즉흥성 내부의 상이한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확립된다.

또 다른 반론은 – 내가 즉흥성의 필수 요소로 주장한 – 충격들을 응답들에 선행하는 규범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다. 즉흥성 안에서 규범은 반응을 통해 소급적으로 확립된다. 상호작용 접근법의 핵심은 즉흥성 속의 충격이 독자적으로 존립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충격은 그 충격을 따르는 반응을 통해서만 확립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격을 잠재적인 규범으로 간주해야 한다. 충격에 대한 반응이 규범이 생성될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집단의 즉흥 연주에서 이와 같은 결정은 서로 다른 개인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도록 한다. 즉흥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할 때, 그들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하나의 즉흥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반복과 규칙 준수에 관한 자크 데리다와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성찰로부터 일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즉흥성 내의 규범이 반복을 통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반복이 규범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자체]의 토대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반복의 기본 형태는 두 번째 행위가 첫 번째 행위에서 확립된 것을 채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첫 번째 행위가 "제안하는" 것은 두 번째 행위를 통해 규범으로 확립된다. 첫 번째 행위와 두 번째 행위의 연결은, 일련의 다른 행위에 의해 더 이어질 수 있는 반복의 연쇄[chain of repetitions]의 중핵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연쇄를 통해 규범은 확립되고 연장된다. 따라서 규범은, 잠재적으로 무한한 반복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재즈 스탠더드를 생각해보라. (거슈윈의 〈I Got Rhythm〉과 같은) 재즈 스탠더드의 조화로운 구조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고, 매번 새롭게 실행할 때마다 변화를 수반한다. 따라서 우리는 즉흥성 안에서 규범이 확립되는 일련의 실천을, 끊임없는 변주와 변화의 연쇄로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이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이 논의한 규범적 실천 개념을 통해, 우리는 이 실천이 어떻게 지속적인 변화와 결부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는 규범이 반드시 미리 주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오히려 규범들의 정체성은 항상 발전할 수 있고, 따라서 늘 변화를 수반한다. 이로써 규범의 적용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여기서 규범의 적용은, 미리 확립된 규범의 반복이 아니다. 오히려 적용은 규범을 재-정립하는 행위이다(cf. 관련 설명은 가다머 참조). 달리 말해서, 즉흥성 안에서 규범의 형성과 적용은 서로 구별될 수 없다. 2 단계 모델과 달리, 상호 작용 접근법은 규범적 구조가 구성과

적용이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된 단 하나의 단계만을 나타낸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이 규범적 실천으로서 즉흥성이 지닌 첫 번째 근본적인 특징이다.

두 번째 특징은 규범의 지속적인 갱신이다. 즉흥성의 매 순간마다, 새로운 충격은 새로운 규범의 형성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즉흥성 내의 모든 충격을, 이 충격이 개입하기 전까지 즉흥성을 지배해온 규범을 문제시하는[questioning]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충격은 양의적인 의미에서 규범을 문제시한다. 한편으로 문제시하는 것은 이미 즉흥성을 이끌어 온 규범을 적용하는 측면일 수 있다. 다른 한편, 그것은 새로운 규범을 확립하고, 따라서 어떤 단절을 유발하려는 시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양의성은 - 연속성과 불연속성, 지속적인 변화와 완전한 갱신 사이에 명확한 구별이 없는 것과 같이 - 충격에 내재한 잠재성이 이중적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유념할 것은 이것이 개념적 주장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물론, 즉흥성의 성격이 한 순간에서 다른 순간으로 완전히 바뀔 때처럼, 즉흥성 안에서 일어나는 분명한 연속성과 분명한 불연속성의 경험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경험된 불연속성을 아마도, 선행하는 것[충격]이 급진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어포던스를 주었다는 의미에서 연속성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연속성 속의 연속성은, 즉흥성이 연속성과 불연속성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내포하지 않는다는 관념이 뜻하는 바를 잘 예시해준다. 모든 충격은 어느 방향으로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충격은 이미 확립된 규범의 새로운 적용을 일으킬 수 있고, 동시에 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규범적 실천으로서의 즉흥성은 지속하는 일과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일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간결한 구절을 남겼다: “우리는 일을 진행해 가면서 규칙을 만든다” (비트겐슈타인 1958: § 83). 즉흥적 실천들은 끊임없이 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규범적 실천으로서 즉흥성이 지닌 세 번째 특성은 앞서의 고찰에 함축되어 있다. 그것은 즉흥성의 시간적 구조이다. 통상적으로 즉흥성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으로 오해된다. 그러나 충격과 반응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상세한 해명이 보여주듯이, 충격의 근본적인 시간적 구조는 현재가 아니다. 오히려 충격은 미래를 지향하는데, 항상 자신을 실현하기 위한 응답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설명한 것처럼, 즉흥성 속의 규범은 오직 충격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만 확립된다. 또한 모든 충격은 그 자체가 지나간 충격에 대한 응답이며, 지나간 충격을 자신에 대한 권위로 받아들임으로써 규범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즉흥적인 규범적 실천이 지닌 시간적 구조는 “과거에 대응함으로써 미래를 연다”는 정식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즉흥성의 충격-응답 구조는 규범성의 독특한 시간적 구조와 결부된다. 우리는 이 시간성을, 즉흥성 내의 규범은 항상 ‘생성 중에 있다(statu nascendi)’는 화학적 개념으로 잘 예시할 수 있다. 인도하는 규범들의 불안정성은, 규범적 실천으로서 즉흥성을 규정하는 정의적 특징이다. 규범들은 미래의 응답들에 의해 더 발전되기를 기다리며, 이어서 미래의 응답들은 충격들이

확립하는 규범들을 지속적으로 문제시한다. 즉흥적 실천 안에서 확립된 규범들은 계속해서 갱신된다. 이런 의미에서 즉흥적 실천들은 항상 만들어지고 있는 규범들에 결합되어 있다.

즉흥성을 이와 같이 정의함으로써, 우리는 즉흥성의 창의적 측면이 어떻게 규범적 구조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논의한 바와 같이, 즉흥성을 형성하는 것은 개별 행동들이 아니다. 오히려, 즉흥적 실천들의 구조는 충격-응답 구조를 따르는 상호작용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개별 행동들을 토대로 삼아서는, 즉흥성의 창의적 측면을 파악할 수 없다. 우리는 즉흥성의 창조적 차원을, 즉흥성의 구조적 요소로 기능하는 상호작용들을 통해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근거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즉흥성의 창조적 차원이 [반드시] 즉흥성의 규범성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즉흥성은 규범적인 실천을 통해 실현되는 창의성의 한 형태이다. 규범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생성 중에 있는' 규범들), 이것이 즉흥성이 지닌 창의성의 본질이다.

4. 요약: 규범적 실천으로서의 즉흥성

즉흥성이란 무엇인가? 나는 실천으로서의 즉흥성이, 미리 주어진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실천, 그리고 단순히 다르게 행하는 실천 둘 다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고찰을 시작했다. 우리는 즉흥성을 규범적 실천의 하나의 특별한 유형으로 생각함으로써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았다. 즉흥성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규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규범들은 이중의 잠재력을 가진 충격과 반응의 그물망에 의해 확립되고 갱신되는데, 이때 이중의 잠재력이란 한편으로는 규범을 재생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규범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충격과 반응을 생산하는 일은 – 이것은 또 다른 발표의 주제가 될 것인데 – 충격과 반응의 실천들 그 자체 안에서 변형되는 수행적, 지각적, 평가적인 능력을 전제한다. 즉흥성은 이러한 능력이 문제시되고 변형되는 것에 대한 개방성을 전제로 한다. 즉흥성은, 규범들(그리고 능력들)이 그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상호 관계를 이루면서 발전하는 하나의 실천이다. 결과적으로, 규범들과 능력들의 상호 발전은 현재를 넘어서는 시간적 구조와 결부된다. 지나간 발전을 바탕으로 즉흥적 실천은 미래를 열고 있는데, 이는 미래의 실천이 자신의 규범적인 영향력을 결정하기를 기다린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즉흥성의 존재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흥성은 (a) 규범들이 생성 중에 있는 규범적 실천이다. 이때 규범들의 생성은 (b)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충격과 반응의 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충격과 반응은 (c) 즉흥성 자체의 규범들 (그리고 능력들)을 변형한다.